

도널드 트럼프와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언어' 게임

박 정 원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영어유일주의'를 천명해 왔다. 이 단일언어 정책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인구학적, 문화적 변화에 직면하여 이민자와 다문화주의를 거부하고 토착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특히, 미국의 히스패닉화와 스페인어의 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백인중심의 문화와 가치를 고수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트럼프의 단일언어주의를 대표적인 라티나 작가인 글로리아 안살두아가 제안하는 '경계의 언어'와 대비시키면서 코드스위칭의 효과와 이중언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경계시대/국경』(1987)에서 안살두아는 하위언어인 스페인어를 텍스트에 포함시키며 자신의 언어적 현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영어와 스페인어의 교차사용을 통한 번역작업을 시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이중언어 사용의 불가피함을 암시하는 한편, 단일언어 독자들에게 타자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안살두아가 구현하는 '경계의 언어'는 이질적인 민족, 계급, 세대의 언어가 충돌하고 교섭하는 게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고정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언어적 형태를 통해 안살두아는 단일언어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다양한 언어들 사이에서 대안적 소통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트럼프, 단일언어주의, 안살두아, 이중언어주의, 코드스위칭, 경계의 언어

1. 서론 - 트럼프 시대와 단일언어주의

지난 1월 20일 거행된 취임식과 함께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날 미국 전역에서 약 200여만 명의 시위대가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Trump Is Not My President)’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서는 등 벌써부터 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 지난 2년간 트럼프의 행적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부동산 재벌이자 백만장자 사업가에서 한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인사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던 그가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현실화되었고, 스스로를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로 자처하며 주류 정치세력의 부패를 공격하면서 바람을 일으켰다. 공화당 예비후보 선거에서 다른 15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되었으며, 여론조사에서의 열세를 딛고 역전에 성공, 마침내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는 구호였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중심주의와 경제 보호주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크 애스핀월(Mark Aspinwall)은 트럼프가 (실제로 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미국 내부에 전쟁 상황을 야기한 두 번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라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이었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 링컨의 남북전쟁이 노예해방이라는 구호와 함께 그 종국의 목표가 미국의 재결합이었다면, 트럼프는 반대로 미국을 분리시키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14). 세계화와 더불어 역설적으로 확산되는 민족주의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20세기를 거치며 ‘예외적’으로 팽창과 통합을 거듭해온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단절과 분리 정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온 역사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과거의 단일한 가치와 이념, 신조를 회복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여성 및 성적소수자에 대한 비하

는 단지 막말 정치가의 즉흥적인 언사가 아니며, 오히려 트럼프 정치의 본질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종적, 성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반발은 언술에 그치지 않고 무슬림에 대한 입국 제한이나 이민을 규제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트럼프의 단일주의 전략은 언어에서도 드러난다. 2015년 공화당 후보 경선 텔레비전 토론에서 경쟁자 잭 부쉬(Jeb Bush)가 방청석에서 나온 질문에 스페인어로 대답하며 라티노 유권자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옆 자리에 있던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이를 비판한다. “이 나라는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는 나라입니다(This is a country where we speak English, not Spanish)”(Gass 2015). 그 이후로 줄곧 트럼프는 ‘영어유일주의(English Only)’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최근의 주류 정치지형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 내 최대 소수인종으로 부상한 히스패닉/라티노는 2016년을 기준으로 총 인구의 16% 정도를, 그리고 유권자의 약 10%를 차지하게 되었다.¹⁾ 인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는 이들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례로 2012년 대선 레이스에서 오바마와 롬니 후보를 포함한 지지자들이 스페인어로 된 선거 광고 방송에 이천삼백만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알려진다. 반면에 트럼프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은 전무하다.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선거캠페인 홈페이지에도 스페인어나 영어이외의 다른 언어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년간 공화당, 민주당에 관계없이 양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삼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 ‘더 커다란 장벽(a great, great wall)’을 건설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잠재적 범죄자’인 이민자의 물결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들의 언어로부터 영어의 오염을 막겠다는 의도를 포함한

1) 역사적, 정치적인 어원 및 지칭 대상에서 ‘히스패닉(Hispanic)’과 ‘라티노(Latino/a)’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현재에는 히스패닉과 라티노라는 용어가 서로 대체가능한(interchangeable) 것으로 간주되며 교차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정부 공식 문서나 행정적 용어로는 ‘히스패닉’이, 자신들의 공동체와 문화를 지칭할 때에는 ‘라티노’가 여전히 선호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용어를 특별한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다.

다. 그의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백악관은 이전까지 존재하던 스페인어로 된 정보와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다(Sharman 2017).²⁾ 영어만을 공식언어로 인정하는 ‘단일언어주의(monolingualism)’ 노선을 분명하고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선언하는 조치인 것이다.

II. 히스패닉화, 토착주의, 그리고 ‘하이픈 국가’

트럼프의 극단적인 조치들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기저에 자리한 토착주의(nativism)가 미국 역사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삼십 년 동안 지속된 세계화와 이주의 물결은 이러한 태도를 강화시켜 왔다. 냉전 종식 이후 이슬람 문명의 도전을 받는 서구와 새로운 세계질서를 논하는 『문명의 충돌』(1994)로 잘 알려진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2003년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Who Are We?: The Crisis of American Identity)』을 발간한다. 이 책에서 그는 시선을 돌려 미국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9.11 사태가 결국 애국주의를 부활시키고 미국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문화와 정체성은 훼손되었으며, 선조들이 이룩한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미국인을 미국인답게 만드는 핵심적 가치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헌팅턴이 보기에 현재 미국의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미국의 히스패닉화(Hispanization)이다.³⁾ 이 용어는 라티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미국을 다른 방향으로

2) 이 조치는 매우 상징적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이 스페인어를 못하는 마지막 미국 대통령이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적이 있으며, 이후 조지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도 본인들의 선거유세와 공식연설에서 스페인어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정 반대의 방향을 택하고 있다.

3) 이는 미국의 라티노화(Latinization)로도 명명된다. 헌팅턴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드는 도시는 마이애미(Miami)다. 스페인어는 이 도시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일 뿐 아니라 상거래, 사업,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어이며, 이로 인해 흑인은 물론 앵글로까지도 소수라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고 지적한다(헌팅턴 307-308).

이끌고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다. 헌팅턴에게 스페인어의 급성장 또한 주요한 관심사이다. “언어는 정신의 혈액”이라고 말한 미겔 우나무노(Miguel Unamuno)를 언급하며 미국의 언어적 정체성의 변화에 주목한다. “요즘에는 단 한마디의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은행 구좌를 열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연속극을 보고, 미국에서 사랑하고 죽을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미국의 언어적 정체성이 새롭게 규정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스테반즈, 헌팅턴에서 재인용 389-390). 일반적으로 2세대, 3세대로 내려오면서 이민자인 부모의 언어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향과 달리, 남서부를 비롯한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는 세대를 넘어서도 영어에 ‘동화(assimilation)’되기보다는 스페인어를 보유하는 경향이 지속된다. 또한 멕시코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로부터의 이민이 계속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2016년 미국의 스페인어 사용인구는 사천오백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지난 300년 동안 영어의 유창함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의 유창함이 학계, 언론계, 그리고 특히 정치와 비즈니스의 성공에서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헌팅턴 211).

이런 이유로 헌팅턴은 다중언어주의가 아닌 이중언어주의가 현실적으로 논의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스페인어의 확산은 히스패닉의 문화가 미국 정체성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 영토에 자율적이고, 영구적이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문화적 히스패닉 공동체가 생긴다고 예측한다. 결국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 그리고 결국에는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앵글로-색슨과 개신교의 가치를 표현하는 영어를 미국의 유일한 공식언어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라이오넬 소사는 히스패닉 사업가 지망자들에게 조언하는 사진의 책 **아메리카노 드림(American Dream)**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는다. “아메리카노 드림? 그것은 존재하고, 그것은 현실적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그곳에 있다.” 그의 말은 틀렸다. 아메리카노 드림은 없다. 앵글로-개신교 사회가 만든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만 있을 뿐

이다. 멕시코 미국인들은 영어로 꿈꿀 때만 그 꿈과 그 사회를 공유할 것이다. (헌팅턴 315, 강조는 필자)

그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정체성과 신화를 대변하는 ‘아메리칸 드림’에 이민자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아가 미국에서 성공하고 번창하려면 “영어로 꿈을” 꾸어야 한다. 즉, 앵글로-색슨 문화의 중심성과 우월성을 인정하고 내면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하여 이민자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주변부로 위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헌팅턴이 복원하고자 하는 토착주의는 영어를 중요시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영어와 다른 언어들 사이의 위계를 전제로 하며, 동화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와 같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담론 뒤에 감추어진 토착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트럼프의 정책은 다문화주의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이픈 국가(hyphenated-nation)’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 아일랜드계 미국인(Irish-American), 멕시코계 미국인(Mexican-American),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 등 붙임표(hyphen)를 통해 출신국가를 표시해 주는 이 용어는 미국인의 이중 정체성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출신을 지시하는 형용사들의 수식을 받는 명사 ‘미국인(American)’은 비어있는 기표가 아니다. 헌팅턴이 명확히 설명하고 있듯이 ‘영어’를 사용하는 ‘앵글로-색슨’, ‘백인’이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붙임표(-)’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인으로 ‘동화’되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아일랜드, 멕시코, 그리고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인(American)의 가치와 정체성은 앵글로-색슨에서 나온다는 대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존재의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언어, 다문화, 다인종을 그 이상으로 표방하는 ‘하이픈 국가’는 실제로는 단일문화주의와 단일언어주의로 귀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미국인(American)’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토착주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실 이 ‘토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논쟁이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스페

인어는 영어보다도 현재의 미국 영토에 먼저 도착하였고 뿌리를 내린 사실에도 불구하고 헌팅턴이 생각하는 토착어의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영어가 지배적인 토착어의 위치로 공고화되는 과정을 추적할 필요성을 갖도록 한다.

아나 마르가리타 세르반테스-로드리게스(Ana Margarita Cervantes-Rodríguez)와 에이미 럿츠(Amy Lutz)는 이를 ‘언어의 지구적 지정학(global geopolitics of languages)’이라는 틀을 통해 바라보며, 영어와 스페인어의 비대칭적 관계가 성립되는 역사적 형성 과정을 탐구한다. 「권력의 식민성, 이민, 그리고 미국에서 영어-스페인어의 비대칭성(Coloniality of Power, Immigration, and the English-Spanish Asymmetry in the United States)」(2003)에서 이들은 세계체제 이론을 정립한 이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을 인용하며 19세기에 이르러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팽창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는 자국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인(universal) 언어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 중에서도 영어는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세계의 공용어라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어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현재 미국의 북동부로부터 출발한 정착민의 언어였다. 독립전쟁 이후 미국이 서부개척 운명론(Manifest Destiny)을 내세우면서 남서부로 진출하였고, 이는 다른 토착민과 정착민과의 충돌을 유발한다. 원주민들(Native Americans)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토착언어와 문화는 말살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으며,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정착민들이 사용하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이후 영어로 대체되었다.

스페인어는 근대 초기에 형성된 강력한 제국의 언어였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고 세계의 항로를 개척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으나 16세기 이후 제국의 쇠퇴와 함께 그 헤게모니 역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스페인어는 미국이 세워지기 전 이미 북미 지역의 토착어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었다. 스페인에서 파견된 후안 폰세 데 레온(Juan Ponce de León)은 1513년 현재의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출발하여 플로리다를 탐사하고 돌아왔으며, 그 이후 플로리다와 북아메리카의 남서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스페인의 정착지와 군사 요새, 그리고 종교적 선교지가 설립, 지속되었다.⁴⁾ 하지만 이 지역에 사용되던 스페인어의

운명에 미친 결정적인 사건은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결과로 양국 간에 맺어진 과달루페-이달고 조약(1848년)이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텍사스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기존 멕시코 영토가 미국으로 편입되면서 이후 스페인어는 법적, 경제적, 전통적 지위와 가치를 급격히 상실하게 된다.⁵⁾

따라서 스페인어는 인종화(racialization)의 과정을 겪으며 토착어의 위치로부터 강등되고, 그 결과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Ana Margarita Cervantes-Rodríguez and Amy Luts 525). 이후 20세기로 넘어오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강화되면서 위계적 구도는 고착되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로부터의 이주가 20세기 후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스페인어는 이민자의 언어로 범주화된다. 탈식민주의 이론가인 월터 미놀로(Walter Mignolo)가 지적하듯이, 권력의 위계질서와 지정학적 위치가 개입되면서 이민자의 언어는 단지 낮설고 이국적인 말이라는 함의를 넘어선다. 따라서 미국에서 스페인어는 영어와의 관계에 있어, ‘식민지의 언어(colonial language)’이자 ‘하층언어(subaltern language)’ 혹은 ‘소수자(minority)’의 언어로 고착되게 되었다(Mignolo 243). 비록 히스패닉화가 진행되면서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어는 여전히 하부언어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와 현팅턴의 경우 이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권력지형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단일언어주의로 영어의 독점적 위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4) 현팅턴도 이런 이유로 멕시코인들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경우 다른 이민자 그룹과는 달리 현재 미국의 영토에 관한 역사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국의 남서부 지역은 전쟁 이전에 스페인에서 독립한 멕시코의 영토였기 때문이다(284).

5) 이 조약은 새로 미국으로 편입된 영토에서 스페인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토지문서가 인정되지 않는 등, 텍사스를 비롯한 남서부 지역에서 스페인어는 토착언어로서의 지위를 잃고 비공식언어로 격하되는 과정을 겪는다.

Ⅲ. 안살두아의 이중언어주의와 코드스위칭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만나 비대칭적인 위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접점의 지대(contact zone)’인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자전적인 성격을 기반으로 증언, 신화, 시,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가 혼합된 그녀의 대표작 『경계지대/국경: 새로운 메스티사(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1987)는 전통적으로 멕시코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남부 텍사스 지역의 집단역사와, 6세대 멕시코계 여성으로서의 개인적 삶을 교차시키면서 경계지대에 산다는 것의 의미를 탐구한다. 여기에서 언어는 안살두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논의하기 위해 천착하는 주요한 대상이며, 그녀는 이를 텍스트에 분명하게 드러낸다. “만약 당신이 나를 정말로 망가뜨리려고 한다면, 내 언어를 모욕하길 바랍니다. 민족적 정체성은 내 언어적 정체성의 쌍둥이와 같습니다 — 나는 내 언어입니다”(Anzaldúa 59). 이런 이유로 텍스트를 통해 영어 뿐 아니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둘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⁶⁾ 안살두아의 글쓰기와 언어적 실험은 단일언어주의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안살두아의 언어관은 트럼프 현상과 관련된 현 시점의 논쟁과 맞물려 비교학적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각적인 논의를 제공하게 된다.

라티노문학은 멕시코계 미국인 작가가 쓴 작품을 지칭하는 치카노문학을 중심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푸에르트리코와 쿠바인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출신에 의해 생산된 작품을 통칭하는 용어이다.⁷⁾ 1960년대 말에

6)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던 안살두아는 자신과 같은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작품을 박사학위의 주제로 선택하였지만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에 의해 거부당한다. 스페인어가 섞인 작품들은 영문학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그녀는 텍사스를 떠나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공식학계의 바깥에서 창작, 비평 활동을 시작한다(박정원 2013).

7)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현재에는 여성을 나타내는 라티나(Latina), 혹은 치카나(Chicana)라는 표현을 병기하여 라티노/라티나 문학, 치카노/치카나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혹은, 중립적인 용어로서 Latin@와 Chican@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일련의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었으며, 이 장르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주요한 여성작가들의 등장으로 미국 주류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다. 당시까지 대부분의 라티노 작가들이 사용한 언어는 영어였다. 당시의 문단과 출판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작가들이 한 언어로만 글을 쓰게 되면서 라티노문학은 “문화로부터 언어를 떼어내고, 이로 인해 후자를 침묵시키면서 전자를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했었다(Pérez 177). 즉, 라티노 작가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재현하고 보여주기 위해 이중언어라는 또 다른 현실을 희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의 전통은 라티노문학 내에 싹을 틔웠고 이후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특징은 주류문단과 비평계에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언어를 통해 민족적(ethnic) 성격을 드러내어 준다는 측면에서 라티노문학의 주요한 성격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라티노 작가들이 문학 텍스트에서 이중언어를 구현하는 방식은 주로 코드스위칭(code-switching)을 통해서이다. 캐롤 마이어스-스코튼(Carol Myers-Scotton)에 따르면 코드스위칭의 일반적인 개념은 “동일한 대화에서 두 가지 언어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다”(239). 예를 들어, 텍스트의 한 지점에서 영어가 스페인어로, 혹은 반대로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언어의 종류가 바뀌면서 언어와 더불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가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환은 하나의 절(clause)이나 한 문장(sentence) 내에서의 절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문장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과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언어가 개입되기 때문에 코드스위칭을 포함하는 작품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말하는 ‘저자적 텍스트(writerly text)’가 갖는 효과를 발휘한다(Lakhtikova 2). ‘독자적 텍스트(readerly text)’는 의미가 이미 고정되어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텍스트라면, ‘저자적 텍스트’는 작가의 의미가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전자가

국내에 번역되어 지금까지 통용되는 방식을 존중하였다. 글에서 여성작가들을 의미할 경우에는 라티나, 치카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필자와 독자 사이의 완전한 의미전달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텍스트에서 수신자가 가지는 존재감과 창조적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장려한다(Barthes, Lakhtikova에서 재인용 3). 이러한 차이로 '저자적 텍스트'에서는 단일한 해석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독자가 의미의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두 언어가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의미의 차이와 불분명함으로 인해 코드스위칭을 포함하는 텍스트에는 다양한 해석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한편, 반대로 그 불명확함으로 인한 오해와 해석의 어려움은 좌절감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 코드스위칭을 담은 작품에 대해 갖게 되는 고정관념 중 하나는 독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중언어 독자들만이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코드스위칭은 단일언어 사용자를 소외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Myers-Scotton 16).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루르데스 토레스(Lourdes Torres)는 이중언어 독자가 코드스위칭 텍스트에 친밀감을 느끼고, 이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라티노 작가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역사와, 문화적으로 독특한 '라티노성(Latinidad)'을 알리기 위해 독자로서 단일언어 사용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영어사용자는 독서 행위를 통해 라티노들의 이중언어 사용이 "이들 삶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점과, 따라서 미국의 현실이 다중언어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Torres 81). 이런 측면에서 코드스위칭 전략은 단일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저자적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통일된 메시지의 전달과 수용방식 대신, 단일언어 독자는 다른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동, 오해, 의심 등의 독서 과정을 통해 보다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서다.

이렇게 코드스위칭은 이중언어 사용자를 포함할 뿐 아니라, 단일언어 독자를 텍스트로 초대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작가가 이들을 전제로 글을 쓴다는 점에서, 그리고 독자가 이중언어 텍스트를 읽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진다. 안살두아 또한 이중언어 사용을 통해 생성되는 복합적인 의미와 다중적 해석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경제지대/국경: 새로운 메스티사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의 제목은 이를 명확히 보여 준다. 영어로 표현한 “경계지대(borderlands)”는 스페인어에는 존재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이며,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인 “혼혈(Mestiza)”은 영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통해 안살두아는 자신 -혹은 자신의 사고와 이념-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언어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경계지대”와 “국경”(경계선)을 각각 영어와 스페인어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두 단어 사이에 의미의 차이를 생각하게하며 그것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만든다.

또한, 영어(“경계지대”)와 스페인어(“국경”) 사이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인 ‘빗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문화적 정체성을 지칭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붙임표(-)’ 대신, 안살두아는 제목에서 뿐 아니라 본문에서도 빈번하게 이 빗금을 활용하고 있다. 붙임표를 통해 헤게모니를 가진 언어로 다른 언어를 통합하고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 사이를 수평적으로 열거하면서 등가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빗금을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에 차이와 갈등, 간극과 공존이 존재하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안살두아의 이중언어주의와 코드스위칭은 자신의 언어적 현실을 재현하는 한편, 기존의 권력관계와 관습적인 독서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IV. 이중 정체성과 번역의 정치학

『경계지대/국경: 새로운 메스티사』는 주로 영어, 혹은 영어를 중심축으로 서술이 진행된다. 이런 측면은 작가 또한 영어 중심의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과,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의 비대칭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다. 영어를 기반으로 하여 스페인어를 포함시키는 방식은 초기 라티노문학 작품들에서 시작되었다. 치카노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로돌포 아나야(Rodolfo Anaya)의 『울티마! 나를 축복해주세요(*Bless me, Ultima!*)』를 비롯하여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발표된 작품들은 영어 사용자들에게도 익숙한 스페인어 용어와 표현들을 간간히 삽입하는

형태로 이중언어주의를 드러낸다. 사람 이름이나 지명, 익숙한 사물이나 동물의 명칭, 인사말과 감탄사 등의 짧은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스페인어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맥락에서 에피소드적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속에서도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의 비대칭 관계를 공고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코드스위칭은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Schmidt 42-44).

반면, 이와는 정반대의 흐름도 존재한다. 로돌포 곤살레스(Rodolfo González)는 두 언어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스페인어의 비중을 높여 영어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치카노 민권운동의 시기에 멕시코계인의 시민적 권리와 인간적 존엄을 서사시의 형식으로 노래한 『내 이름은 조아킨/내 이름은 호아킨(*I am Joaquín/Yo soy Joaquín*)』(1967)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한 쪽 페이지에는 영어를, 바로 옆 페이지에는 같은 내용을 스페인어로 병기하는 형식을 택한다. 또한 또 다른 고전인 토마스 리베라(Tomás Rivera)의 소설, 『그리고 대지는 그를 삼키지 않았다(... *And the Earth Did Not Devour Him*)』(1971)의 이중언어 판본에는 영어로 된 소설이 끝나고 나면 동일한 내용이 스페인어로 반복된다.⁸⁾ 그리고 앞에는 영어 제목의 표지가, 뒷 표지에는 스페인어로 된 소설 제목과 소개가 담겨있다. 이러한 이중언어 전략은 다소 기계적인 방식의 일대일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언어가 교차하고 섞이기 보다는 각각의 언어사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소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중언어주의 텍스트로 부를 수 있어도 코드스위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경계시대/국경』 또한 기존 라티노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방식의 코드스위칭 형태를 상당부분 이어받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문장 속에 표현하고 싶은 단어, 특히 명사나 형용사를 삽입하는 등 영어 구문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교란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스

8) 최초 이 작품은 스페인어로 출간되었으나, 비평적 성공을 계기로 곧 이중언어 판본으로 개정되어 인쇄되었고 결국 이 이중언어 판본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페인어를 이탤릭체의 형태로 표기하면서 영어와 확실히 구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스페인어의 느낌을 살리는 한편, 전달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안살두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어 중심의 문장구조에 균열을 가져오기도 한다.

The U.S.-Mexican border *es una herida abierta* where the Third World grates against the first and bleeds. And before a scab forms it hemorrhages again, the life blood of two worlds merging to form a third country –a border culture. Borders are set up to define the places that are safe and unsafe, to distinguish us from them. A border is a dividing line, a narrow strip along a steep edge. A borderland is a vague and undetermined place created by the emotional residue of an unnatural boundary. (25)

미국-멕시코 국경은 제3세계가 제1세계와 만나고 피흘리는 *절개된 상처*이다. 그리고 두 세계가 흘린 생명의 피가 모여 제3의 국가를 형성한다. 그것은 경계의 문화이다. 국경은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 그리하여 안전하고 위험한 장소를 규정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경계는 가파른 모서리 주위를 타고 얇은 끈으로 된 분리선이다. 경계지대는 부자연스러운 구분선의 감정적인 잔여물이 만들어낸 애매하면서도 결정되지 않는 장소이다. (25)⁹⁾

미국-멕시코 국경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 첫 문장은 작품의 대전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안살두아는 여기에 스페인어로 된 개념적 비유 어구 “*절개된 상처(una herida abierta)*”를 사용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동사인 “es”를 포함시킨 사실이다. 문장의 주축이 되는 동사를 스페인어로 대체함으로써 단순히 명사와 형용사를 삽입하는 것 이상의 구문적 효과를 노린다. 영어의 ‘is’와 유사한 음절과 발음을 가진 동사를 대체함으로써 문장의 중심을 스페인어로

9) 이중언어와 코드-스위칭이 사용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필자의 번역본과 함께 원문을 병기하였다. 원문에서 스페인어로 된 부분은 한글 번역에서는 이탤릭체로 처리하였음을 밝힌다.

옮겨오고 있다. 즉, 영어 중심의 문장흐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스페인어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 부분적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전통은 영어 중심적 언어 환경에서 하위언어, 소수자 언어로 살아남은 스페인어의 흔적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안살두아는 이를 의미론적, 구문론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일상적이고 낮익은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개념적이고 사상적, 이데올로기적인 의미 또한 전달하는 언어로서 스페인어의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텍스트 내에서 영어의 중심적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차원으로 나아간다.

영어 문장의 내부로 스페인어가 침투하는 방식과 더불어 구사되는 또 다른 코드스위칭의 형태는 동일한 내용의 문장이 영어와 스페인어로 교대로 등장하면서 상대 언어를 해석하고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작가가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혹은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작업과 유사하다.

En boca cerrada no entran moscas. “Flies don’t enter closed mouth” is a saying I kept hearing when I was a child. *La habladora* was to be a gossip and a liar, to talk too much. *Muchachitas bien criadas*, well bred girls don’t answer back. (76)

파리는 닫힌 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파리는 닫힌 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어렸을 때 자주 들던 속담이다. 말 많은 제집애는 험담이나 하는 거짓말쟁이야. 교육 잘 받은 소녀들, 교육 잘 받은 소녀들은 말대꾸하지 않는다. (76)

위 단락은 스페인어로 된 문장(“*En boca cerrada no entran moscas*”), 어구(“*Muchachitas bien criadas*”), 단어(“*La habladora*”)를 같은 내용의 영어로 반복, 설명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안살두아는 자신이 살아온 남부 치카노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제공해 주고 있다. 남성중심주의를 상징하는 멕시코 속담을 영어로 해설하면서 멕시코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영어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와 같이 코드스위칭에는 번역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Hansen Esplin 179).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안살두아는 번역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이자 화자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독자들과 타협하고 ‘중간(halfway)’에서 만나려는 시도를 한다. 코드스위칭이 번역의 과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그녀가 두 언어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이자 중개사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위언어인 스페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영어독자들을 위해 스페인어 바로 뒤에 영어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의 간극을 메워 주고 거리감을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라티노문학에서 번역작업으로 활용되는 코드스위칭은 오직 영어에만 접근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완충(cushion)’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Torres 80). 따라서 비록 스페인어가 영문 텍스트에 등장하더라도 영어로의 변환을 통해 텍스트의 맥락을 확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코드스위칭은 교육학적(pedagogical)이고 민족지학적(ethnographic)인 성격을 지닌다. 어니스트 루딘(Ernest Rudin)과 같은 학자는 이런 중립적인 입장과는 달리 ‘완충’ 작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중언어 독자들은 두 언어가 중복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불필요한 독서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225). 그러나 코드스위칭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번역의 작업이 반드시 영어 독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작가이자 화자로서 안살두아는 번역을 통해 두 언어와 두 문화 사이를 횡단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마찬가지로 이중언어 독자들은 독서행위를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의 구문적, 문법적, 의미적 차이와 유사점을 확인하면서 이 번역의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한센 에스플린은 이 작업을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자기 번역(Self-translation)’으로 명명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의 코드스위칭이 더욱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글쓰기로 진화한다고 설명한다(191).

한편, 『경계지대/국경』은 코드스위칭이라는 동일한 전략을 통해 번역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안살두아는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종종 영어와 스페인어를 특정한 논리나 질서에 상관없이 교체한다.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혹은 반대로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친절한 설명이나 해제를 비롯한 어떤 ‘완충’ 작용도 설정하지 않는다.

La travesía. For many mexicanos del otro lado, the choice is to stay in Mexico and starve or move north and live. Dicen que cada

mexicano siempre sueña de la conquista en los brazos de los brazos de cuatro gringas rubias, la conquista del país perdido del norte, los Estados Unidos. En cada Chicano y mexicano vive el mito del tesoro territorial perdido. North Americans call this return to the homeland the silent invasion. (32)

강 건너기. 국경의 반대편에 사는 많은 멕시코 사람들에게, 선택은 멕시코에 남거나, 굶어 죽는 것, 아니면 북쪽으로 이주해 사는 것이다. 모든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인 백인여자 네 명을 소유하고, 미국이라는 북쪽의 강대국을 정복하는 꿈을 꾸다고 한다. 모든 치카노와 멕시코 사람들은 잃어버린 소중한 영토에 대한 신화 속에서 살아간다. 미국인들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조용한 침공이라고 부른다. (32)

인용된 부분에서는 스페인어 문장에서 영어 문장으로 전환되고,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상황이 반복된다. 여기에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전환은 번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의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코드스위칭은 두 언어가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두 언어가 대립적으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스페인어가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경우와 상황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안살두아는 번역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위언어인 스페인어가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영어로 완벽하게 의미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두 언어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안살두아가 제시하는 번역의 불가능성은 스페인어의 대체불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이중언어 구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어로 전환되지 못함으로 인해 스페인어로 말할 수밖에,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토레스는 번역이라는 완충 과정 없이 영어와 스페인어의 코드가 '변환'되는 이러한 방식을 '급진적 이중언어주의(radical bilingualism)'로 명명하고 있다(Torres 86). 플리처상을 수상한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작가인 주노 디아스(Junot Díaz)의 경우는 안살두아가 스페인어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이탤릭체마저 생략하는 방식을 통해 이 두 언어의 위치를 완전히 동등하게 설정하면서 이 두 언

어를 자유롭게 교차시킨다.¹⁰⁾

단일언어 사용자는 이러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급진적 이중언어주의’의 전략은 바로 독자로 하여금 이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안살두아는 영어사용자에게 스페인어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여, 당신의 정신에 존재하는 도플갱어를 인정하라”(Anzaldúa 86).¹¹⁾ 이 코드스위칭 방식은 단일언어 사용자에게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를 단념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이 주장하는 ‘전략적 본질주의’와 유사하다.¹²⁾ 영어 사용자들은 스페인어 문장들을 무시하고 건너뛰면 전체 문단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스페인어가 영어로 번역되기를 기다리거나 독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류 언어인 영어의 특권을 버리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타자의 언어인 스페인어를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이면서 소통의 가능성이 열

10) 안살두아가 작품의 일부를 할애하여 이 번역불가능성과 ‘급진적 이중언어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면, 이후의 라티노/라티나 작가들은 이 실험을 더욱 진전시킨다. 마르가리타 코타-카르데나스(Margarita Cota-Cárdenas)의 『인형(Puppet)』(2004)과 수사나 차베스-실버만(Susana Chavez-Silverman)의 『킬러 크로니카(Killer Cronica)』(2010)에는 작품 전체에 걸쳐, 혹은 작품 속 모든 문장에서 코드스위칭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실험의 미학적, 인식론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은아(2011)를 참고하라.

11) 치카노나 멕시코인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미국인을 ‘그리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12) 스피박은 사고를 근본적인 지점까지 심화시키는 동시에, 이론적 순수주의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적 실천을 기획하기 위해 ‘전략적 본질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녀는 ‘서발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하층민이 지식인 엘리트에 의해 재현되는 과정을 해체하며 서발틴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이론적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그것이 지식인의 행위의 무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인은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서발틴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안살두아가 ‘번역의 불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은 타언어와의 소통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실천하는 주체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략적 본질주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라썸(2007)을 참고하라.

리는 것이다. 안살두아는 자신의 최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항상 번역해야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중언어로 코드스위칭을 할 때까지, [...] 영어사용자들이 나를 수용하기 보다는 내가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면 내 혀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Anzaldúa 59). 이 주장은 포용적인 언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단일언어주의자들에게 인식의 전환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영어 사용자들은 번역되어지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독자 위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과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타자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성을 제기한다.¹³⁾ 이런 측면에서 코드스위칭은 번역이 불가능한 타자를 이해하려는 ‘윤리의 공간(ethical space)’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V. 언어의 경계지대, 경계지대의 언어

안살두아는 영어-스페인어의 비대칭 구도와 영어의 헤게모니 속에서 이중언어로 성장해온 자신을 표현하고 기존의 관습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코드스위칭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이중언어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단일언어 사용자를 적극적 독자로 전환시키는 한편, 이들과의 교섭을 통해 새로운 언어사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안살두아가 단지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중언어주의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기계적인 규범이나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녀는 미국 남서부의 복합적인 언어현실을 담아내고자 한다. 자신은 “표준 영어”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영어와 속어”, “표준 스페인어”, “멕시코식 표준 스페인어”, “멕시코 북부의 스페인어 방언”, “치카노 스페인어”, “텍스-멕스(Tex-Mex)”¹⁴⁾, “칼로(Caló)”¹⁵⁾를 말하고 있다고

13) 안살두아가 주장하는 타자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영어사용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경계지대를 의미하는 영어 ‘borderlands’는 스페인어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이런 측면에서 반대로 스페인어 사용자 또한 ‘타자’에 다가가는 행위가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다. 텍스트 내에서 영어사용자를 주로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영어-스페인어 간의 비대칭성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지적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밝힌다(77). 이중언어 사회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지역, 계급, 인종, 세대, 사회적 그룹을 아우르는 방식을 통해서, 안살두아는 텍스트 전체에 걸쳐 이종적(heterogeneous)이고 복수적(plural) 언어 형태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단일언어주의 담론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언어를 텍스트에 가시화하면서 안살두아는 경계지대 언어의 복원을 시도한다. 미국사회에서 이 언어는 스페인어식 표현을 뒤섞으면서 표준 영어를 오염시키고 문법체계를 파괴하는 국적불명의 ‘스팬글리쉬(Spanglish)’로 불려왔다. 마찬가지로 멕시코로부터는 영어식 표현으로 변질된 미국화된 스페인어의 의미인 ‘포초/포차(Pocho/Pocha)’로 비난받아 왔다. 이렇게 국경을 공유하는 양쪽 국가에서의 비난과 경멸에 대해 안살두아는 양가성(ambivalence)과 복수성(plurality)이라는 담론을 통해 경계의 언어를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카노 스페인어는 자연스럽게 진화해온 경계의 언어이다. [...] 한 언어는 삶의 방식에 호응한다. 치카노 스페인어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언어이다”(Anzaldúa 77). 복수성으로 표현되는 이들의 언어는 주변화되고, 낙인찍히고, 교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언어를 통해 멕시코계 미국인, 즉 치카노들의 자긍심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계지대/국경』은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존재하는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우아어(Nahuatl)의 등장이다. 스페인의 정복 이전 아즈텍인들의 언어였던 나우어어는 현재는 멕시코 중앙의 소수언어로 존재하며, 지명이나 이름 등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안살두아는 멕시코 문화에 존재하던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여성성의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 아즈텍 여신 코아틀리쿠에(Coatlícuē)를 재발견하고 이와 관련된 신화를 소개한다. 또한, 아즈텍 신화에서 유래한 붉은 잉크와 검은 잉크를 의미하는 나우아어 “*Tilli, Tlapalli*” 등 인명과 장소 등의

14) 텍사스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발전시킨 음식, 언어, 음악의 스타일을 통칭하는 표현.

15) 주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멕시코계 2세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 영어와 스페인어가 자주 혼용된다.

표현을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에서 첨가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선조어라고 생각하는 나우아어를 텍스트에 소환하는 의도는 치카노들의 정체성과 자 긍심을 잃어버린 과거를 통해 재구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나우아어는 영감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영성적(spiritual)'¹⁶⁾ 역할을 수행한다.

(다중언어를 포함하는) 이중언어주의를 바탕으로 안살두아는 다양한 언어의 만남과 상호교류를 긍정한다. 그러나 어떤 언어의 주도권을 강제하거나 한 언어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언어의 존재와 그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공식(으로 간주되는) 언어에서 하위언어와 신화적 언어에 이르기까지, 중산층의 표준 언어에서 지방의 사투리와 젊은 세대의 속어를 넘나들면서 광범위한 언어의 스펙트럼을 텍스트에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언어의 코드스위칭을 즐긴다.

영어로부터 표준 스페인어, 멕시코 북부 방언, 텍스-멕스에다 간간히 등장하는 나우아어, 그리고 이 모든 언어들의 혼합이라는 이 책에서 보여주는 '코드' 스위칭은 나의 언어를 반영하며, 그것은 또한 **새로운 언어**이며, **경제지대의 언어**라고 불릴 수 있다. (20, 강조는 필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하고 옮겨가는 과정에서 단절과 분리의 원칙은 힘을 잃는다. 만남과 충돌, 갈등 속에서 타자와 타언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밟게 되며, 나아가서는 다른 언어들 사이의 교섭(negotiation)을 통해 새로운 언어가 생성된다. 이 새로운 언어는 “영어도 스페인어도 아니고 둘 다를 의미하며, [...] 두 언어의 다양한 형태가 된다” (77). 만남을 통해 제3의 언어가 탄생한다는 논리는 하나의 통합된 언어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하게 증식된 ‘언어들(languages)’의 생성이다.¹⁷⁾ 안살두아는 이 과정을 혼란스럽고,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된 언어는 창의력을 잃어버린 화

16) 안살두아의 영성성(spirituality)에 관한 논의는 박미선(2015)을 참고하라.

17) 단일언어의 중심성을 해체한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은 출간시기와 맞물려 주로 포스트모더니즘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혼종(hybridity)’을 통한 새로운 복수 언어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정된 변증법적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석화된 언어와도 같다. 경계를 허물고 타자와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더 많은 경계와 더 넓은 언어의 영토를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경계지대의 언어는 생산적이고 동시에 예술적이며, 풍요롭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새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경계지대의 언어는 역설적으로 안살두아에게 있어 “고향의 말(home tongue)”과 같다. “나는 나의 언어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언어와 정체성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단일한 언어를 강제할 수 없듯이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로 안살두아는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잡(complex)하고 이종적(heterogeneous)인 사람들이다”라고 서술한 부분은 핵심적이다(77). 이본느 야그브로-베하라노(Yvonne Yarbaro-Bejarano)는 안살두아가 다름의 전략을 통해 정체성은 환원되지 않는 복수적 요소로 구성되며 그 결과로 ‘비단일적 주체(non-unitary subject)’가 형성된다고 분석한다(23-25). ‘비단일적 주체’는 고정된 정체성과 언어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경계를 넘는 형태로 자신을 확장하고 재영토화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를 함의하고 있다. 안살두아가 형상화하는 비단일적 언어와 주체는 정체성의 상실과 분열을 의미하는 대신, 접점 지대에서 벌어지는 언어와 문화의 상호교환과 재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VI. 결론 - 언어의 ‘전쟁’에서 언어의 ‘게임’으로

트럼프와 안살두아를 통해 본 언어의 문제, 특히 스페인어와 이중언어 주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누가 진정한 미국인인가에 대한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미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토론과도 연결된다. 『미국을 다시 꿈꾸기: 이중언어 미국문화를 향하여(*Redreaming America: Toward a Bilingual American Culture*)』(2005)에서 데브라 카스티요(Debra A. Castillo)는 세계화의 물결과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990년대 이래로 미국 사회에서 언어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민족과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진정성(authenticity)'의 논의를 동반하는데, 주로 누가 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그 민족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대결로 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진짜'에 대한 개념은 '순수함'과 '단일함'의 논리와 연결된다. 그렇지만 다양한 민족과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에서 순수하고 단일한 민족과 정체성을 설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으며, 진정성을 강제하려는 자아의 전략과 집착은 일종의 정신분열 증상(schizophrenic symptoms)을 가져오게 되었다. 카스티요는 최근 일군의 미국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중언어를 실험하면서 '진짜'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 증상을 치유하려 노력한다고 분석한다(147-149).

'진정성' 논쟁에 있어 트럼프는 이 단어의 고전적이고 관습적인 의미에 기대고 있다. 순수하고 단일한 가치를 지니는 미국이 위대함을 재건할 수 있다는 과거에의 향수 속에서 건국을 주도한 '백인-앵글로 색슨-프로테스탄트(WASP)' 중심의 가치와 정책을 다시 내세운다. 트럼프의 언어 정책인 '영어유일주의' 또한 다른 언어가 순수성을 해치고 정체성을 오염시킨다는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유일한 공식 언어로서 영어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다른 언어들은 '외국어'라는 이름을 통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스페인어 또한 미국의 언어가 아닌, 세대를 지나면서 영어로 동화될 운명을 지닌 외부언어이자 이민자의 언어로 규정된다. '하이픈 국가'라는 개념 또한 이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다문화주의의 이상을 장려하고 여러 문화와 언어를 붙임표로 연결하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순수하고 단일한 미국(America)이라는 (무)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이픈 국가'에서도 분리의 논리는 여전히 공존의 논리에 우선한다.

반면, 안살두아는 다양한 언어와 이들의 혼종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애매함을 미래를 위한 일종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두 가지 언어로 살아가는 자신의 양가적 위치를 불리한 조건에서 창조적 시너지의 원천으로 전환시킨다(Anzaldúa 85). 이를 위해 코드스위칭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기존의 역사에서 지워진 스페인어의 존재를 가시화하며, 번역 과정을 통해 두 언어의 소통가능성을 타진한다. 또한 번역의 불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에서는 이중언어주의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타자와의 공감과 이

해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다. 이를 통해 안살두아는 한 가지 언어 이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것을 자신과 치카노 공동체, 그리고 미국인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파악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개념을 수정하고 있다.

이중언어주의 혹은 다중언어주의를 ‘새로운 감정 교육(a sentimental education)’으로 비유하는 도리스 소머(Doris Sommer)는 트럼프와는 반대로 단일언어주의를 일종의 ‘결핍증후군(deficiency syndrome)’로 파악한다(viii). 국가와 그 언어가 더 이상 일대일로 조용하지 않는 시대에 단일 언어의 사용에 집착하는 태도는 효율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소머는 다중언어주의를 혼란의 요인으로 치부하는 대신에, 그 다양성을 해결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언어는 사회적 자산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는 ‘풍요로움’을 획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은 구성원들에게 ‘이중의식(double consciousness)’을 제공한다. 이 ‘이중의식’은 자기의 특권을 버리며 자신의 언어를 낮설게 보도록 만들고, 동시에 타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돕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창조적인 지식, 새로운 미학, 그리고 대안적인 지혜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한다(Sommer 191-193).

안살두아가 제안한 ‘경계의 언어’는 분리와 대립을 통한 적자생존적 사고방식을 넘어 자신의 기반을 의심하고 해체하면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그 문화적 영토를 넓혀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경계지대/국경』은 하나 이상의 언어가 만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고, 소통을 확대하고, 상호이해와 공존을 추구하는 유희의 텍스트이다. 또한, 단일언어와 단일 정체성에 대한 향수로 인해 다른 언어를 정복하려는 전쟁의 논리가 아닌, 놀이와 실험을 통해 창조적 에너지를 분출하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잠재력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이 언어의 게임은 트럼프의 집권과 함께 다시 현실화되는 언어의 토착주의를 둘러싼 정치적, 문화적, 미학적, 철학적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참고문헌

- 박미선, 「인식론적 액티비즘과 경계지대의 영성: 『경계지대/경계선』 이후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후기 사상」, 『여성학연구』, 25(1), 2015.
- 박정원,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경계지대/국경』」, 『트랜스라틴』, 25, 2013.
- 새리 하라섬, 『스피박의 대답』(이경순 옮김), 갈무리, 2007.
- 새무얼 헌팅턴, 『새무얼 헌팅턴의 미국』(형선호 옮김), 김영사, 2004.
- 이은아, 「『킬러 크로니카(Killer Cronica)』의 코드 변환(Code-Switching)에 나타난 인식론적 도전」, 『세계문학비교연구』, 35권(0), 2011.
- Anzaldúa, Gloria. *Borderlands/ 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1987.
- Aspinwall, Mark. “Trumpty Dumpty’s Wall.” *LASA Forum*, Vol. XLVII, Issue 3, Summer 2016.
- Castillo, Debra A. *Redreaming America: Toward a Bilingual American Cultur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5.
- Cervantes-Rodríguez, Ana Margarita and Amy Lutz. “Coloniality of Power, Immigration, and the English-Spanish Asymmetry in the United States.” *Nepantla: Views from South*, Vol 4:3, 2003.
- Gass, Nick. “Trump explains why he attacked Bush for speaking Spanish.” *Politico*, Sept 16, 2015.
<http://www.politico.com/story/2015/09/2016-gop-debate-donald-trump-jeb-bush-spanish-213748> (검색일: 2017. 02.10)
- González, Rodolfo. *I am Joaquin/ Yo soy Joaquín*. Self-published, 1967.
- Hansen Esplin, Marlene. “Self-translation and Accommodation: Strategies of Multiculturalism in Gloria Anzaldúa’s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and Margarita Cota-Cárdenas’s *Puppet*.” *MELUS*, Vol. 41, No. 2 (Summer 2016).
- Lakhtikova, Anastasia. “Code-switching in Anzaldúa’s *Borderlands/La Frontera* and Walcott’s *Omeros*: A Literary Device for ‘New Readability’.” (manuscript)

- https://www.academia.edu/28875855/Code-Switching_in_Anzald%C3%BAas_Borderlands_La_Frontera_and_Walcotts_Omeros_A_Literary_Device_for_New_Readability. (검색일: 2017. 02.10)
- Mignolo, Walter. *Local Histories, Global Design: Coloniality, Subaltern Knowledges, and Border Think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Myers-Scotton, Carol. *Multiple Voices: An Introduction to Bilingualism*. Malden, MA: Blackwell, 2006.
- Pérez Firmat, Gustavo. *Tongue Ties: Logo-Eroticismo in Anglo-Hispanic Literature*. New York: Palgrave, 2003.
- Rivera, Tomás. ... *And The Earth Did Not Devour Him*. Berkeley: Quinto Sol, 1971.
- Rudin, Ernest. *Tender Accent of Sound: Spanish in the Chicano Novel in English*. Tempe: Bilingual Review Press, 1996.
- Schmidt, Margaret. "The Limitations of Code Switching in Chicano/a Literature." *Young Scholars in Writing*, Vol. 8, 2011.
- Sharman, Jon.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Takes Down Spanish-language White House website." *Independent*, Jan, 24, 2017,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donald-trump-administration-takes-down-white-house-spanish-language-website-civil-rights-history-a7543121.html> (검색일: 2017. 02. 10)
- Sommer, Doris. *Bilingual Aesthetics: A New Sentimental Educ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4.
- Torres, Lourdes. "In the Contact Zone: Code-switching Strategies by Latino/a Writers." *MELUS*, Vol. 32: 1, 2007..
- Yarbro-Berjarano, Yvonne. "Gloria Anzaldúa's Borderlands/La Frontera: Cultural Studies, "Difference," and the Non Unitary Subject." *Cultural Critique*, No. 28, 1994.

❖ ABSTRACT

Language Games between Donald Trump and Gloria Anzaldúa

Park, Jungwon

Donald Trump,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revived the 'English Only' policy since the beginning of his presidential campaign. The monolingualism not only underscores his extremely conservative ideas, but it also reflects the nativist tendency that prevents the demographic and cultural transformation of the US, which is accelerated by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migration. In particular, Donald Trump tries to reconfirm the mainstream American culture that is now thought to have been threatened by Hispanization and the growing number of Spanish speaker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code-switching" and the possibility of a bilingual community by contrasting Donald Trump with Gloria Anzaldúa, one of the representative Latina writers who created a "border language." *Borderlands/La Frontera* (1987) includes Spanish glossaries and expressions to represent her bilingual realities, while attempting to translate from English to Spanish, and vice versa. However, the text occasionally demonstrates the impossibility of translation. In doing so, Anzaldúa indirectly states that it is indispensable to present both languages at the stage; she also invites monolingual readers to make more efforts to learn and better understand the Other's language. A "border language" she attempts to embody throughout the text is created in the process of encounters, conflicts, and negotiations among languages of different ethnicities, classes and generations. It does not signify an established form: rather it appears as a constantly transforming language, which can provide us with new perspectives and an alternative way of communication beyond monolingualism.

Key Words : Donald Trump, 'English Only', Gloria Anzaldúa, bilingualism, code-switching, border language

112 비교문화연구 제46집(2017.3)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